

태안 특별재난지역 주민을 위한

#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정명훈 자선콘서트

## 개최목적

2007년 사상 최악의 기름유출 사고로 충남 태안 일대가 특별재난 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중소기업인과 예술계가 협력하여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성금 마련



## 자선콘서트

- 일 시 : 2008. 1. 20(일) 늦은 5:00~6:50
- 장 소 :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음악당)
- 출연진 : 지휘 정명훈, 서울시립교향악단
- 연주곡 : MAHLER Symphony No. 1 in D Major 'Titan'  
(말러 교향곡 1번, '거인')  
BEETHOVEN 'Calm Sea and Prosperous Voyage' Op.112  
(베토벤 칸타타 '고요한 바다와 즐거운 항해')

## 초청대상자

- 중소기업 가족(CEO, 근로자, 고객)    행사 공동주관 및 후원기관 관련인사
- 일반국민 등 2,500명

공동주관 :



후원 : 성금지원 참여기관



## 행사진행 순서

시 간	구 분	내 용	비 고
16:40~17:00	내빈 입장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17:00~17:30	1부 행사 - 성금전달	오프닝멘트 (사회자) 내빈 소개 (사회자) 출연자 소개 (사회자) 중소기업중앙회장 인사말씀 예술의전당 사장 인사말씀 SBS 사장 인사말씀 태안재난지역 돕기 성금전달	* 사회 진양혜
17:30~18:50	2부 행사 - 음악공연	MAHLER Symphony No. 1 in D Major 'Titan' (말러 교향곡 1번, '거인')  BEETHOVEN 'Calm Sea and Prosperous Voyage' Op.112 (베토벤 관타타 '고요한 바다와 즐거운 항해')	* 진행 진양혜



### 지휘자

한국을 대표하는 지휘자 겸 피아니스트. 1974년 모스크바 차이콥스키 국제음악콩쿠르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피아니스트로 주목 받았고, 1989년 프랑스 국립 바스티유오페라극장 음악총감독 겸 상임지휘자를 맡으면서 세계 최정상급 지휘자로 인정받았다. 2000년부터 도쿄 필하모니오케스트라의 음악고문으로 활동했고 2006년부터는 서울시립교향악단 음악감독 및 상임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

###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역사는 1945년 계정식, 현제명, 김성태를 중심으로 설립된 고려교향악단에서 연원한다. 이후 1948년 김생려가 중심이 된 서울교향악단과 1950년 해군정훈음악대를 거쳐 1957년 서울시립교향악단 창단으로까지 이어진다.

클래식 불모의 시대환경 속에서도 서울시향은 우리 음악계의 질적 도약과 클래식 음악의 저변확대라는 과제에 누구보다 크게 기여했다. 도전 의식과 개척 정신으로 한국 교향악단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